

최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은 외상적 사건의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 기억들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이 독특하고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쉽게 회상되는 기억들로 남아서 개인이 자신의 경험들을 통합하여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Brewer & Treynens, 1981; Brown & Kulik, 1977; Hunt & McDaniel, 1993).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외상적 사건이라는 부정적 기억을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지적 편향을 갖고 조직화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Bernsten과 Rubin(2006)은 이처럼 외상적 사건의 기억이 개인의 경험을 조직화하는데 인지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건중심성척도(Centrality of Event Scale, 이하 CES로 약칭)를 개발하였다. Bernsten과 Rubin(2006)은 외상적 사건의 기억이 개인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판단 기준(reference point)’으로서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Tversky와 Kahneman(1973)은 사람들이 쉽게 떠오르는 사건들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즉, 외상적 사건의 기억과 같이 쉽게 떠오르는 사건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경계하게 된다. 또한, 외상적 사건의 기억은 다른 사건들의 해석에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중성적 사건에 대해서 외상적 사건과의 유사성

을 지나치게 높게 판단하여 객관적으로는 안전한 상황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놀라고 피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

둘째, 외상적 사건은 삶의 이야기에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된다(Baerger & McAdams, 1999; Robinson & Taylor, 1998). 전환점은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Pillemer, 1998, p.76). 외상적 사건의 기억은 종종 개인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Janoff-Bulman, 1988), 한 개인의 가치들, 선택들, 행동들에 영향을 미쳐 삶의 이야기에서 한 장을 끝내고 다른 한 장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McAdams, 2001; Pillemer, 1998).

셋째, 외상적 사건의 희생자나 생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자기 개념 안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되면서, 외상적 사건의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Brewer, 1996; Brown, 1965). 이러한 역할에 적응한 개인은 외상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들을 자신 내부의 안정적인 특성들로 귀인하면서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Greening, Stoppelbein, & Docter, 2002; Peterson & Seligman, 1984).

Bernsten과 Rubin(2006)은 위의 세 가지 개념에 기초해서 CES의 문항들을 구성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한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내적합치도는 .94를 보였으며, 외상증상과는 .38, 우울증상과는 .23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판별분석에서 CES는 외상증상을 예언하였으나 우울증상을 예언하지 못하였다. 또한, 7문항으로 구성된 CES 단축형을 구성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된

CES와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97이었고, 내적 합치도는 표본에 따라 .88~.92로 나타났다.

Bernsten과 Rubin(2007)은 CES가 PTSD를 독립적으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CES가 불안, 우울, 해리 및 자의식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도 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Boelen(2009)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잃는 외상적 경험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ES가 임상적 수준의 애도증상을 측정하는 척도 ICG-r(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revised)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ES 한국판을 타당화하는 것이다. Ehlers와 Clark(2000)은 외상적 사건 이후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부적응적 믿음이나 외상적 기억이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심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죄책감을 포함한 심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우울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개인들이 경험하는 PTSD 증상 이외의 대표적 증상이다(Creamer, Burgess, & McFarlane, 2001; Grieger, Fullerton, Ursano, & Reeves,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ES의 수렴 타당도 확인을 위해 CES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이하 PDS로 약칭) 및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로 약칭)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CES의 구성타당도 검증에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및 강원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은 175명, 대학원생은 15명이었고, 여자는 144명, 남자는 46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7~29세 범위에 해당했고, 평균 연령은 만 20.4세였다.

사건중심성척도

Bernsten과 Rubin(2006)이 개발한 사건 중심성 척도는 살아오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었거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떠올린 후 20개의 문항들을 읽고 답하도록 되어 있다.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일치하지 않음(1점), 일치하지 않음(2점), 일부 일치함(3점), 일치함(4점), 정확히 일치함(5점) 중에서 한 번호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저자가 CES 문항들을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역번역 결과와 비교하고 문장의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외상후스트레스진단척도

PDS는 Foa와 Riggs(1993)가 개발한 척도로 안현의(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9문항으로 외상적 사건의 종류와 사건 경험 후 경과한 시간 및 사건 당시의 주관적 경험을 묻는 21개 문항과 DSM-IV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PTSD 증상을 묻는 17문항, 증상의 지속기간 및 문제를 경험한 영역들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S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

PTSD 증상을 묻는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7문항은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0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끔 그런 적이 있다(1점),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4번 정도 그런 적이 있다(2점),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나 거의 매일 그렇다(3점)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17문항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백우울척도

BDI는 우울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척도로(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동기적, 행동적 증상들에 상응하는 21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한 정도가 다르게 기술된 증상들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SPSS를 사용해서 CES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6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N=190)=3573.79, p<.0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스크리 도표에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과 고

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 수를 기준으로 2개 요인을 정하여 분석하였고,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법(principle axis factoring)과 프로맥스(promax) 회전방식(kappa=4)을 선택하였다. 한 요인에 최소 4문항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요인 부하량이 최소 .30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두 요인에 모두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그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교차 부하(cross loading)된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2개 요인에 의한 누적 설명 변량은 65.92%로 나타났으며, 1요인이 이 중 62.49%를 설명하였고 2요인은 3.43%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1요인에는 11개 문항이 해당되었는데, 문항 구성 당시 전환점으로 분류된 모든 문항과 정체성으로 분류된 5, 8, 11, 19번 문항, 판단기준으로 분류된 17, 20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2요인에는 나머지 9개 문항이 해당되었는데, 문항 구성 당시 판단기준으로 분류된 8개 문항 중 6개 문항과 정체성과 관련된 3, 6, 7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중 7, 12, 13번 문항은 교차 부하되었다. 1요인으로 분류된 17, 20번 문항은 질문에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전환점 관련 문항들과 한 요인에 포함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문항 구성 당시 정체성으로 분류되었던 문항들이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지 못하고 그 질문의 유사성에 따라서 1, 2 요인으로 나누어 포함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요인간의 상관인 .81로 높게 나타나 단일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CES의 구성타당도의 확인을 위해서 AMOS

표 1. CES 모델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1요인 모델	649.784	170	.848	.864	.123
3요인 모델	598.231	167	.861	.878	.117
1-3 요인모델	598.231	167	.861	.878	.117
수정된 1-3 요인모델	458.923	164	.903	.917	.098

를 사용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Bernsten과 Rubin(2006)은 판단기준, 전환점, 정체성의 세 가지 구성개념에 기초해서 CES 문항을 구성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는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CES가 Bernsten과 Rubin(2006)이 요인분석한 결과 및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대로 한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 문항을 구성할 때 근거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에 더해서,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1개의 상위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모델을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요인을 가정한 2요인 모델을 구성한 후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 값이 .30 넘는 등 적합도가 극히 좋지 않아 이 모델은 다른 모델과의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요인 모델과 1-3 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1요인 모델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 표 4에서와 같이 3요인 모델의 경우 3요인들 간의

상관이 .92~.97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3요인이 아닌 1요인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더 간명하기는 하겠으나 1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세 모델 중 가장 낮은 데서도 보듯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이 보다는 적합도 지수는 3요인 모델과 같으면서 문항 구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 3요인들 간의 공분산을 설명할 수 있고 이 3개의 1차 요인들에 모두 .95 이상의 매우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1개의 2차 요인을 가정한 1-3요인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이후, 모델 3에서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와 공분산을 기준으로 측정 오차들간의 공분산을 허용하고, 그 결과 χ^2 차이 검증(χ^2 difference test)으로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 1과 2, 문항17과 20, 문항7과 11의 측정 오차들 간에 공분산을 허용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모델 수정 후, TLI와 CFI가 .90을 넘었고, RMSEA가 보통 적합도에 해당하는 .098으로 나와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수정된 최종 모델의 문항과 요인부하량은 표2에 나와 있고 이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1차 요인들과 문항들 간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으며, Bernsten과 Rubin(2006)이 본 척도를 개발할 당시 요인별로 구분한 문항들과 차이가 없었다. 최종 모델의 각 문항과 요인부하량은 표 2에 나와 있다.

각 요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기준 요인은 현재의 경험에서 외상적 사건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거나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미래도 유사한 경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점 요인은 외상적 사건의 기억이 살아

표 2. CES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63		
2. 나는 현재의 삶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거나 닮은 점들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73		
4. 이 사건은 내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상징하고 표시한다.	.83		
9. 나는 현재의 관계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거나 닮은 점을 자주 보게 된다.	.78		
12. 이 사건은 내가 다른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87		
13. 나는 이 사건에 비추어 나의 앞날을 생각한다.	.75		
17. 나는 이 사건이 내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자주 생각한다.	.70		
20.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자주 돌아본다.	.80		
10. 이 사건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81	
14.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면, 이 사건은 그 중심에서 다른 많은 경험들로 이어질 것이다.		.83	
15. 내 삶의 이야기는 크게 이 사건 이전과 이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83	
16. 이 사건은 내 삶을 영구적으로 변하게 했다.		.85	
18. 이 사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81	
3. 이 사건은 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81
5. 이 사건으로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			.82
6.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			.82
7.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			.81
8. 이 사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82
11.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			.81
19.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86

은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하고, 삶에서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와 외상적 사건 이전과 이후로 삶의 이야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체성과 관련된 요인은 외상적 사건의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에 비추어 자신을 이해하며 외상적 사건의 경험이 현재

표 3. CES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전체(190)	남성(46)	여성(144)	
44.12 (20.17)	41.00 (21.54)	45.12 (19.69)	-1.21

표 4. CES 요인점수간 상호상관과 CES, PDS, BDI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 및 상관계수

	판단기준	전환점	정체성	CES	PDS	BDI
전환점	.15					
정체성	-.14	-.22				
평균 (표준편차)	17.69 (8.02)	10.33 (5.30)	16.18 (7.78)	44.13 (20.17)	9.21 (9.30)	11.12 (9.09)
내적합치도	.92	.91	.93	.94	.90	.91
전환점	.84**					
정체성	.89**	.89**				
CES	.96**	.93**	.97**			
PDS	.62**	.57**	.64**	.64**		
BDI	.30**	.34**	.36**	.33**	.51**	

** $p < .01$

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도

CES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9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1은 .92, 요인2는 .91, 요인3은 .93에 이르렀다. 2~3주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으로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표 3에 CES의 평균, 표준편차가 제시되었고,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df)=-1.21(188), ns$).

수렴 타당도

CES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PDS와 BDI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CES는 PDS와 .64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CES와

BDI도 이 보다는 낮으나 .33으로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PDS와 BDI 역시 .5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CES의 각 요인들과 PDS, BDI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중심성의 세 구성 요소에 따라 이론적으로 구성된 CES의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1요인 모델에 더해, 판단기준, 전환점, 정체성의 3요인 모델, 이 3개의 일차 요인과 1개의 2차 요인으로 구성된 1-3요인 모델의 3가지 모델을 가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1-3요인 모델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nsten과 Rubin(2006)이 제시한 1요인 모델과는 불일치하는 결과로, 1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을 넘어, 3개의 하위 요인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문항을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판단기준, 전환점, 정체성의 3요인들을 이후 연구들에서 하위 척도들로 사용할 필요성과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1-3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1요인 안에 있는 1번과 2번 문항, 17번과 20번 문항, 3요인 안에 있는 7번과 11번 문항의 측정 오차간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이는 이 문항들이 서로 공유하는 또 다른 설명 요인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1번 문항(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과 2번 문항(나는 현재의 삶에서 이 사건과 연결되거나 닮은 점들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은 과거 외상적 사건의 경험으로 형성된 생각의 틀로 현재의 새로운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7번 문항(나는 이 사건이 내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자주 생각한다)과 20번 문항(나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자주 돌아본다)은 외상적 사건 자체의 영향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7번 문항(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과 11번 문항(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은 나와는 다를 것이다)은 외상적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내면적 변화를 경험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뢰도 분석에서 CES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97로 Bernsten과 Rubin(2006)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내적합치도 .94와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요인1 판단기준의 내적 합치도는 .93, 요인2 전환점 내적 합치도는

.91, 요인3 정체성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CES는 외상적 사건이 새로운 경험들을 외상적 사건의 기억과 연결시켜 생각하도록 사고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 외상적 사건이 삶의 큰 흐름, 정체성이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른 안정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CE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지수는 .83으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예상과 일치했다.

수렴 타당도에서는 CES가 PTSD 증상과 .64의 상관을 보이며 명확한 관련성을 나타냈고, 우울 증상과는 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3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PTSD 증상과 우울 증상도 역시 .5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Bernsten과 Rubin(2006)이 CES를 개발할 당시 CES와 PTSD 증상과의 상관을 .38($p < .001$), 우울 증상과의 상관을 .23($p < .01$)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외상적 기억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이와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 정서 문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거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상적 기억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판단하고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PTSD 증상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ernsten과 Rubin(2006)이 외상적 기억이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면서 외상적 경험을 내부의 안정적 특성으로 귀인하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 중 부적응적 믿음이 증상에 기여하는 부분과 외상적 기억이 증상에 기여하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본 척

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 중에서 외상적 기억이 하는 역할의 정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외상적 기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척도를 통해 외상적 기억이 현재의 경험에 대한 판단 편향을 가져오는 정도, 삶의 흐름과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온 정도를 확인하여 외상 관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지적 측면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된 임상 집단이 아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DS 문항들 중 PTSD 증상 정도를 나타내는 17문항만을 사용하였고, PDS 문항 중 외상적 사건의 종류, 사건 경험 후 경과한 시간, 사건 당시의 주관적 경험 및 증상의 지속기간, 적응 문제를 겪은 영역들을 묻는 문항들을 통해 DSM-IV의 PTSD 진단 준거에 해당하는 임상집단을 분류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DSM-IV의 PTSD 진단 준거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CES의 영향 정도와 양상의 양적, 질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Baerger, D. R., & McAdams, D. P. (1999). Life story coherence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Narrative Inquiry*, 9, 69-96.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rnsten, D., & Rubin, D. C. (2006).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 Bernsten, D., & Rubin, D. C. (2007). When a Trauma Becomes a Key to Identity: Enhanced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Predic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417-431.
- Boelen, P. A. (2009). The centrality of a loss and its role in emotional problems among bereaved peo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616-622.
- Brewer, W. F. (1996). What is recollective memory? In D. C. Rubin(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pp. 19-66).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wer, W. F., & Treyens, J. C. (1981). Role of schemata in memory for places. *Cognitive Psychology*, 13, 207-230.
- Brown, R.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The

- Free Press.
- Brown, R., & Kulik, J. (1977).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5, 73-99.
- Creamer, M., Burgess, P., & McFarlane, A. C. (200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ndings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sychological Medicine*, 31, 1237- 1247.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ersist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Foa, E. B., &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In J. Oldham, M. B. Riba, & A. Tasman (Eds.), *Review of psychiatry*(Vol. 12, pp.273-303).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Greening, L., Stoppelbein, L., & Docter, R. (2002). The mediating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 and event-specific attributions on postdisaster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261-274.
- Grieger, T. A., Fullerton, C. S., Ursano, R. J., & Reeves, J. J. (2003). Acute stress disorder, alcohol use, and perception of safety among hospital staff after the sniper attacks. *Psychiatric Services*, 54, 1383 - 1387.
- Hunt, R. R., & McDaniel, M. A. (1993). The enigma of organization and distinctivenes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 421-445.
- Janoff-Bulman, R. (1988).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 113-136.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00-122.
- Peterson, C., & Seligman, M. E. (1984). Caus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 Pillemer, D. B. (1998). *Momentous events, vivid memo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J. A. & Taylor, L. R. (1998). Autobiographical memory and self-narratives: A tale of two stories. In C. P. Thompson, D. J. Hermann, D. Bruce, J. D. Read, D. G. Payne, & M. P. Toglia (Eds.), *Autobiographical memory: Theoretical and applied perspectives* (pp. 125-14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1 차원고접수 : 2011. 6. 30.
수정원고접수 : 2011. 8. 10.
최종게재결정 : 2011. 9. 1.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Myeong Sook Cho

Young 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CES) was developed to measure how central an traumatic event is to a person's identity and life story by Berensten & Rubin(2006).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CES. The CES is administrated to 190 undergraduate students. This students also complete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PD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one-three factor solution. The CES demonstrated satisfactory convergent validity which was supported by i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PDS and the BDI.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ES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traumatic even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부록 1. CES의 문항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662																			
3	.558	.635																		
4	.569	.626	.757																	
5	.474	.558	.644	.700																
6	.562	.610	.714	.751	.678															
7	.543	.601	.621	.598	.668	.687														
8	.500	.559	.659	.747	.675	.645	.624													
9	.537	.617	.603	.642	.548	.692	.628	.581												
10	.442	.505	.628	.665	.655	.580	.608	.648	.565											
11	.478	.546	.614	.630	.659	.634	.855	.627	.604	.694										
12	.523	.671	.686	.673	.646	.687	.781	.694	.681	.680	.767									
13	.557	.566	.562	.622	.552	.643	.565	.541	.588	.585	.567	.637								
14	.418	.572	.665	.717	.665	.612	.611	.655	.590	.745	.680	.668	.588							
15	.416	.438	.616	.596	.620	.597	.547	.665	.485	.650	.580	.612	.532	.694						
16	.447	.568	.629	.608	.716	.687	.652	.637	.572	.671	.658	.683	.608	.668	.743					
17	.417	.498	.445	.504	.563	.537	.571	.492	.533	.546	.643	.614	.674	.578	.551	.630				
18	.482	.483	.639	.657	.632	.657	.578	.715	.582	.610	.567	.642	.549	.610	.749	.676	.577			
19	.454	.584	.620	.604	.735	.640	.756	.704	.600	.666	.711	.738	.586	.700	.673	.734	.611	.688		
20	.443	.521	.565	.616	.631	.611	.620	.651	.676	.603	.617	.674	.692	.664	.651	.675	.767	.692	.702	